

성경적 적용 중점으로 본 유아성경교수에서의 심리학 통합과 활용

김남임

요약

본 연구는 성경과 심리학의 성경적 통합원리를 알아보고 이에 기초하여 성경교수에서의 심리학의 성경적 적용 방법과 실제에 대해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동기유발 같은 심리적 기제에 민감한 유아 대상의 성경교수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기이론을 성경적으로 통합해 봄으로서, 그 적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기독교 교육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짚어본 후 개혁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통합원리를 제시하였다. 둘째, 유아성경교수에서 동기이론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와 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유아성경교수에서 동기이론을 성경적으로 통합한 구체적 적용실제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심리학을 성경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유아에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을 전하고 유아가 이를 내면화하는 것을 돕는 수단으로서 적용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에서 심리학에 대한 성경적 통합이 유아성경교수현장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대상과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성경적 적용, 개혁주의 세계관, 유아성경교수, 심리학 통합, 동기이론

I. 서론

기독교에서 심리학의 통합이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기독교 진리에 근거하여 현대 심리학의 학문적 업적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접근으로 기독교 학문과 현대 심리학을 통합하고자 하는 흐름을 말한다.

오늘날 성경교수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경과 심리학 간 통합은 기독교 교육의 방법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성경저자가 말하는 중심주제에 시선을 고정하되 성경적 이해에 학습자가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정일웅, 2011: 333-337). 이러한 과정은 성경교사가 성경의 중심 주제를 학습자 이해 수준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통합적 안목과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통합에 대한 입장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데 있다. 현대의 기독교 교육학자들 가운데 Lee(1971)와 같은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심리학을 복음전파에 유용한 도구로 성경교수 현장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LeBar(1980), De Jong(1985)와 같은 복음주의 진영의 학자들은 인본주의 배경의 심리학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경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보고 통합에 대해 매우 신중하면서도 제한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이렇게 대립되는 입장들 가운데서 어느 입장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통합에 대한 여러 관점들이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함영주, 2012: 75-82).

이와 같은 성경교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통합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논리로 귀결되는 바, 개혁주의 세계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성경’에 입각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Wolters, 1985=양성만 역, 2007: 12)한다는 점에서 ‘성경’을 따르는 통합의 원리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해 명확한 성경적 기준을 세움으로서 성경교수현장을 세워나가는 ‘개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는 개혁주의 세계관의 주요정신과 일치한다.

국내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논의는 주로 기독교 상담분야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최광현, 2003; 김수연, 2003; 안경승, 2003; 김준수, 2006; 심수명, 2006; 박기영, 2007; 김미숙, 2007; 오운선, 2008; 김용욱, 2011, 김용민, 2012; 전형준, 2014; 황지연, 2014; 이봉남, 2015). 이들 연구들은 성경적 원리를 따르며, 기독교적 인간이해를 근간으로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독교교육과 공유되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그 적용이 인간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상담에 국한되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르침을 통한 인간의 성장과 전인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성경교수와 관련된 기독교교육과 심리학의 통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히 미비한 편이다. 담보상태에 있는 기독교교육의 돌파구로서 통합을 논의한 김삼복(2009)의 연구와, 개혁주의 관점에서 통합의 원리를 제안한 함영주(2011, 2012)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통합논의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와 방법이 성경교수현장과 같이 구체적인 교육대상과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 보다 실천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 교회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에서 교회학교 내 신학을 전공한 교육전도사는 ‘유아-교사 상호작용’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를 보였으며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전도사는 ‘신학이론과 성경공부’를 가장 높게 요구하였다(강미라, 2011; 97). 미래 교회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보고서에도 이러한 요

구를 반영하여 성경교사는 “교수학습능력”, “학생에 대한 이해”, “신학 및 교리에 대한 이해”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함영주 외, 2015: 188-189). 미취학 부서의 유아대상 성경교수 현장과 같은 경우에는 성경적 통합에 대한 균형 감각이 더욱 요구된다. 성경학습에 대한 집중도와 심리적 변화 추이가 다른 연령대보다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성경교사는 상징적인 성경의 모티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 감각적 경험이 일어나도록 동기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유혜령 외, 2003: 103-105).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는 성경적 가르침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동기이론의 교수학습방법들이 더욱 중요하고 긴밀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성경교수현장의 실태가 시사하는 바는 오늘날 성경교수 현장에 통합적 안목을 갖춘 지도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적용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짚어 본 후 개혁주의세계관에 기초한 심리학의 성경적 통합원리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심리학의 주요이론인 동기이론을 성경적으로 통합하여 유아대상 성경교수현장에 적용해봄으로서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실재를 제안하였다. 먼저, 지금까지 기독교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독교교육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짚어본다.

II. 기독교에서의 심리학 통합에 대한 이해

1. 현대심리학의 시작과 기독교에 미친 영향

현대심리학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으로 통칭하지만, 엄밀하게는 19세기 후반 현대 심리학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심리학은 기독교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소주제에서는 심리학을 현대심리학으로 명명하여 19세기 이전 기독교심리학과 구별 지었다. 역사적으로 심리학은 성경에 원류를 둔 기독교전통에서 시작되었다(Johnson, 2007=전요섭 역, 2012: 36). 성경은 인간이 지닌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와 중세 수도원 운동, 성경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 그리고 청교도역사 등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심리적 이해들을 창조질서 안에서 발전시켜왔다. 그 과정에서 심리학은 “인간본성과 영혼 돌봄”이라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인간의 영적성장을 위한 역할을 하였다(Johnson, 2007=전요섭 역, 2012: 20-21).

그러나, 19세기 후반 현대심리학의 등장과 함께 기독교 심리학에 위기가 시작되었다. 현대심리학의 모체인 계몽주의는 중세 신학적 전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회귀하려는 인간중심 사조로서 많은 현대주의 학문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자주적 이성과 개인의 경험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실증주의와 과학혁명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인간존재연구에도 자연과학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여파로 형이상학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새로운 심리학의 바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태동된 현대심리학은 자연과학의 실험 기법들을 사용하여 인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세기에 들어서 이전 시대 심리학이 이룬 인간 본성에 대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설명을 대체하는데 성공하며 “합리적인 접근법”으로 자리를 굳혔고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일반적으로 불리는 ‘심리학’은 성경의 가치관으로 여과되지 않은 인본주의에 토

대를 둔 현대심리학으로 대표되기에 이르렀다(Johnson, 2007=전요섭 역, 2012: 78-87).

여기서 파생된 교수학 이론들은 교회 내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경험중심’, ‘흥미중심’ 교육이론으로 유아교육을 대표하는 자유주의자 존 듀이의 교육이론을 들 수 있다. 경험과 흥미라는 실용적인 가치가 일반교육 전반에 흐름을 주도하면서 그 영향력은 교회교육에도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심리학 수용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기독교적 재조명의 절차가 생략되면서, 성경교수 현장은 자유주의 영역과 복음주의 영역 간 대립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뚜렷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채, 갈등상태가 지속되어 왔다(이돈하, 2012: 164-165). 그 결과 오늘날 교회교육 전문인들이 성경교수에서 심리학 사용에 상당한 오류를 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이들이 오랜 전통을 가진 기독교의 심리학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류 심리학인 현대심리학으로 혼란되어왔기 때문이다(Johnson et al., 2010= 김찬영 역, 2012: 181). 이러한 이유로 성경교수현장은 거의 대부분 듀이의 구성주의가 주도하는 등 심리학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할 만큼 동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세속 학문이라는 이유로 심리학을 처음부터 터부시하는 대립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Jones and Butman, 1991=이관직 역, 2009: 28; 김용욱, 2011: 2),

기독교에서 심리학 통합에 대한 논의와 관점이 다양한 이유에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였으며(강진구, 2014: 2-3), 갈등과 대립, 딜레마가 공존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통합에 대한 접근도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다음은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Carter and Narramore, 1979; Collins, 1981; Jones and Butman, 1991).

2. 기독교에서의 심리학 통합에 대한 관점

기독교에서 심리학 통합에 대한 모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 모형들은 내부적으로 어느 것을 더 우위에 두는지에 따라 성경 중심인가 혹은 심리학 중심인가로 양분되기도 한다(Carter and Narramore, 1979=전요섭, 1997: 91-127).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의 모형을 소개하고, 각 입장의 강조점과 제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신학과 심리학의 대립모형이다. 이 형태는 인본주의 배경의 심리학이 성경과 본질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대립관계로 단정 짓고, 심리학과 상호협조의 가능성을 배제한다(Carter and Narramore, 1979=전요섭 역, 1997:91).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정확무오한 성경만이 답임을 강조하며 인본주의 배경의 심리학을 성경과 통합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Adams, 1970: 15-19=정정숙 역, 1985: 53-58). 그러나 성경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성경적 해석과 적용이 어려운 사례들이 늘고 있다(Johnson et al., 2010= 김찬영 역, 2012: 45-46). 다양한 인간심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성경적 적용을 도와줌과 동시에 성경의 진리가 낯선 이들을 위한 연결고리로서 심리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Johnson et al., 2010= 김찬영 역, 2012: 397).

둘째는 신학이 심리학에 편입되는 종속 모형이다. 이 관점은 성경보다도 심리학을 더 우위에 놓는 형태이다. 인간중심 신앙과 자연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심리학을 성경 위에 놓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신

학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인간의 사랑, 자유, 책임, 및 그와 유사한 가치들에 초점을 두는 반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죄, 구원의 필요성 등 인간존재의 궁극적인 문제들은 부수적이 된다(Carter and Narramore, 1979=전요섭 역, 1997: 108-112). 그러므로 이와 입장을 같이 하는 인본주의적인 심리학도 인간의 원죄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해주지 못한다(이관직, 2003: 17-18). 이를 테면, 힐트너(Hiltner)와 같은 경우는 이 원죄 개념을 “사회적 조절과정”이라고 하여 심리학체계에 맞추어 바꾸어버렸다(안석모 외, 2009: 284-285). 그러나 심리학적 인간이해만으로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받은 인간에 대한 복음을 제시할 수 없다. 이처럼 인간의 원죄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는 성경과 심리학의 통합 모델이다. 이 관점은 성경이 인간이해에 기여하는 요소와 심리학의 학문적 업적을 존중하여 양측 간 조화와 관련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기본입장을 같이 하지만(Johnson et al., 2010= 김찬영 역, 2012: 48), 통합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통합주의자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Collins, 1981=이종일 역, 1992: 32; Carter and Narramore, 1979=전요섭 역, 1997: 152-153, Jones and Butman, 1991=이관직 역, 2009: 513, Crabb, 1977: 47-52). 통합주의자들이 보이는 견해는 대체로 다른 통합의 견해에 배타적이거나 심리학과 성경을 대표하는 단편적인 사건의 결합에 그친다. 또한 종합적인 기독교적 근거나 구조화된 이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경과 심리학을 “동등한 자격”으로 놓고 통합을 시도한다는 점(Ackerman, 1997), 성경의 계시는 완전한 계시이지만 심리학의 일반계시는 타락으로 이미 왜곡이 일어났음을 기본 전제로 할 때(Wolters, 1985=양성만 역, 1992: 73-74), 위협할 수 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계시를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시키는 것은 성경의 계시마저 왜곡되게 해석하고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함영주, 2012: 89).

지금까지 기독교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심리학 통합 관점으로, 신학과 심리학의 대립모델, 신학이 심리학에 편입되는 종속 모델, 성경과 심리학의 통합 모델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각각의 입장이 지니는 강조점과 배타성, 그리고 이로 인해 드러나는 나름의 과제도 정리해보았다. 이처럼 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성경과 심리학이 통합을 이루는 것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 관점을 요구한다. 따라서 성경적 통합을 이론 심리학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개혁주의 세계관 이에 근거한 통합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본 심리학 통합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통합이란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성경적 진리에 기초한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타락으로 인하여 왜곡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 구속으로 인해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었으므로,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한다(Wolters, 1985=양성만 역, 2007: 83-84). 이것은 성경의 진리인 창조·타락·구속의 역사를 통해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이루는 비전을 말한다(신국원, 2005: 45-46, 154).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고 변질된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는 ‘개혁’은(Wolters, 1985=양성만 역, 2007: 99), ‘학문의 영역’에서도 동일하다. 개혁주의의 세계관에 따라 신학과 학문을 통합하는 데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학문의 각 영역에 타락이 일어난 곳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서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돌이키는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신국원, 2002: 14). 이처럼,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이 세상 진리의 각 영역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도록 할 때, 개혁주의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Holmes, 1983=이승구 역, 1985: 195).

개혁주의 세계관에 따른 성경적 통합은 그동안 분리해왔던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는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를 극복하는데 있다(Holmes, 1983, 이승구 역, 1985: 193-194). 이에 따라 특별계시로서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둔다는 전제 아래 일반계시로서 현대 심리학을 재조명한다. 기독교심리학자 스탠턴 존스(Stanton Jones)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논의로 통합의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그는 심리학의 ‘성경적 통합’이란 “모든 실재와 특정 학문의 주제에 대한 우리의 근본 믿음과 실천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특별계시에 합당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실재와 각 학문 분야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하는 것(Johnson et al., 2010= 김찬영 역, 2012: 155)”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롬 11: 36).”는 성경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심리학에 대한 “통합의 가능성과 한계” 설정에서 “구원과 관련된 유일한 진리의 원천”인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함영주, 2012: 87, 91).

개혁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성경과 학문의 통합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의 힘이 학문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창조계를 회복시키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즉, 특별계시로서 성경의 복음진리로 일반계시인 심리학을 통합하여 세속화된 심리학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심리학의 왜곡된 분야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에 있다. 세속화된 심리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심리학의 모든 요소들을 성경의 권위 아래 놓고 성경의 빛으로 제련해야 한다. 성경의 빛 가운데 드러내고 주의 깊게 조명한 심리학의 자원들이라면 개혁주의의 명확한 한계설정 안에서 방법론적으로 보완하고 활용할 수 있다(Johnson et al., 2010= 김찬영 역, 2012: 397). 결론적으로 개혁주의 세계관에서의 심리학 통합에 대한 입장은, 성경의 채로 걸러서 활용할 수 있는 심리학의 자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

그 실천을 위해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여, 개혁주의 세계관에 근거한 유아성경교수에서의 심리학 통합을 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적용해보고자 한다.

III. 유아성경교수에서의 동기이론의 성경적 통합에 대한 이해

1. 동기이론과 성경교수

동기이론은 인간행동을 지속시키는 내면의 힘 또는 의욕·의향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한다(오윤선, 2009: 177-178; 권택조, 2005: 288). 교수학습 상황에서 ‘동기(Motive)’란 학습자가 배움의 장으로 들어 오게 하고 그 과정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서 학습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힘이다. 이러한 심리적 힘이 학습 상황에서 강하게 작동된 상태를 ‘동기화(Motivation)’된 것으로 본다. 교사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동기가 최적의 상태로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발하며 학습목표를 추구해나간다(이성진 외,

2009: 227; Gerd Theissen, 2003: 341-342). 요약하면 동기이론은 목표 지향적 학습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요인들이 최적화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주요 분야이다.

교수학습 상황에서 동기는 학습행위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기유발과 관계된다. 유형은 외적동기유발과 내적동기유발이 있다(Gerd Theissen, 2003: 342). 외적동기유발은 목표에 따른 새로운 행동을 획득하고 지속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관찰 가능한 외적 행동의 변화로 학습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행동주의 교육원리에 근거한다(안영진, 2009: 111). 특정 자극에 따른 반응을 결합시킴으로서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학습자의 태도와 그 보상으로 경험하는 성취를 결합시킴으로서 보다 능동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형태이다. 나아가 사회적 관계 안에서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는 모델링의 방법으로도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해당된다(이성진 외, 2009: 102-119). 이에 비해 내적동기유발은 인간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사물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전략에 주안점을 두는 인지주의의 학습 원리에 근거한다(안영진, 2009: 77). 내적동기유발도 3가지 형태가 대표적이다. 우선, 피아제의 인지적 불일치 개념으로 적절한 차이나 모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일으키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다음, 어떤 학습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행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흔히, 얻게 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동기부여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동기유발은 자발적 동기유발이다. 학습자 내부의 주제적 결단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동기유발보다 능동적 태도를 갖게 한다(Gerd Theissen, 2003=고원석·손성현 역, 2010: 385-386).¹⁾

이처럼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이루는 하나로서 인간심리를 이용하여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유아교육분야에서도 동기는 교수-학습의 전 과정에서 '흥미'와 연계된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다루어왔다. 흥미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실제(DAP: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로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초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에 동기유발과 직결된다. NAEYC(미국유아교육협회, 1991)는 현대 유아교육심리이론의 토대를 형성한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기본 가정을 논하였다. 이에 따르면 유아는 성인과 다른 유아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며 흥미와 알고자 하는 욕구는 학습을 자극한다고 보았다(NAEYCE, 1997: 9-15). 미국유아교육협회와 미교육부유아교육전문가협회(NAEYC & NAECS/SDE, 1991)에서도 유아의 관심과 발달수준에 맞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제기나 질문을 통해 흥미로 이끌고 있다(NAEYC

1) 동기유발방법을 정리한 독일의 신학자 타이센은 교수학적 낙관론을 기본정서로 채택하고 있다. 동기유발의 방법과 원리를 차용하여 성경의 내용을 담는다면, 성경을 학문적으로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Gerd Theissen, 2003=고원석·손성현 역, 2010: 431-434). 그는 이러한 접목을 통해 심리학을 형성하는 이론 중 하나를 성경교수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창조적이면서도 대담한 가설을 펼쳐나갔다. 그의 시도는 동기이론의 학습자 이해가 성경교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심리학을 일반은총으로 보면서도 잘못된 적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할 것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소심함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도전이 된다. 한편, 그의 낙관론은 인본주의 동기이론의 성경적 구현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등하게 통합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러한 방식은 아무리 효과적이고 뛰어난 적용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학습자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학습자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의 낙관론을 무조건 수용하기 어렵다. 타이센이 실제 성경교수 현장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들은 그의 책 382-429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NAECs/SDE, 1990: 18). 이처럼 흥미는 일시적 관심이나 표면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유아가 학습 대상에 지속적으로 몰입되는 통합된 태도이다(송도선, 2005: 164-165). 또한 학습의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는 흥미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탐색한다. 이것이 학습상황에서는 유아의 발달특징과 이해수준을 반영하여 동기유발의 형태로 나타난다(우연경, 2012: 1180).

성경교수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기이론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 일련의 과정과 역동적으로 유아의 심리적인 기능들이 상호작용한다(이성진 외, 2009: 18). 이렇게 동기유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경이해를 위해 제시한 감각자료나 실물자료에 의해 유아의 학습지속력이 영향을 받는다. 유아기는 감각 운동적이고도 직관적 사고특성으로 인해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학습이 시작된다(정옥분, 2004: 80). 또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인출할 수 있는 기억전략이 갖출렸기 때문에 흥미를 갖고 주의 집중하는 시간도 매우 짧다(정옥분, 2004: 326-328).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의 동기를 고양시켜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동기이론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현장에서는 빠질 수 없는 주요관심사이다(정종진, 2002: 466).

동기이론은 학습자의 동기유발이라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교수법과 함께 연구되어왔다. 그만큼 교사는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는데 있어 학습자 주변의 어떠한 사회적 요인보다 유력한 위치에서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Eggen and Kauchak, 2004=신중호 외 역, 2006: 467; 안영진, 2009: 163-164).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교수 현장에도 그 파급력이 크다. 학습자가 성경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는데 있어 동기부여의 에너지는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Gerd Theissen, 2003=고원석·손성현 역, 2010: 33-34).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린연령으로 갈수록 동기부여의 화려함 때문에 정작 성경적 이해는 너무나 빈곤하거나 잘못된 결론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경교수에게는 학습자의 동기를 활용하는데 있어 성경적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우선 성경적으로 동기부여의 상기와 은유가 성경본문의 맥락이나 중심 주제를 적절하게 담고 있는지(May et al., 2005: 3-10, 강란혜 외 역, 2010: 17-25), 이 과정에서 성경본문이 의도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는지(Richards and Bredfeldt 1998=안영혁·이순옥 역, 2010: 349), 성경의 정확성을 훼손하거나 신학적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는지에 관한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정일웅, 2011: 337-370). 다음으로 유아에게 적용하기 위한 발달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유아기는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후 배우게 될 모든 앎의 토대를 놓는 시기이다. 동기이론도 하나님, 예수님, 창조, 죄 등의 성경의 기초개념을 가르치고(Richards and Bredfeldt 1998=안영혁·이순옥 역, 2010: 386) ‘그리스도를 닮는 태도와 습관의 형성’이라는 성경교수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Habermas and Issler, 1992=김성웅 역, 1997: 395-396). 유아가 학습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유아의 학습은 교과과는 정형화된 틀보다 일상생활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다. 경험과 연계될 때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됨으로서 자발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고 이는 곧 학습의 과정이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2). 따라서 성경교수에서의 동기유발은 유아의 실생활 맥락에서 일어나며, 흥미를 유발하는 감각적 경험과 연계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성경교사가 이러한 통합적 역량을 갖출 때, 성경의 내용에 충실하면서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신중한 접근을 할 수 있다(김희자, 2003: 102-116; 이상옥, 2009: 10-11).

성경교수에서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동기이론과 같은 경우도 성경적 통합을 위한 균형적인 안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기이론을 성경의 눈으로 조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동기이론의 성경적 통합

성경과 동기이론은 인간관부터 다르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한다(창1:26-28). 이것은 인간의 복잡한 행동 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다. 바로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입히셨다는 것을 의미한다(히 4:12; Hoekema, 1986, 류호준 역, 1990: 136-137; Powlison, 1995: 35). 이에 비해, 인지주의와 행동주의에 기반한 동기이론은 각각 인간의 내적능력에 대한 전적인 가능성과 신뢰 그리고 환경이 인간의 육체를 조작한다는 신념에 기반한다. 동기이론이 기초한 인본주의적, 기계론적 인간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창 1:27)는 성경적 인간관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인간의 동기를 성경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기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분명하다. 학습자의 자아로 향했던 욕구의 방향이 하나님과 성경의 세계를 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동기인 것이다. 하나님이 학습자의 동기를 이끌도록 하고 거기에 학습자가 따르도록 할 때, 동기이론의 올바른 성경적 통합이 될 수 있다(Hoekema, 1986, 류호준 역, 1990: 148-149; Powlison, 1995: 35, 김준수, 2012: 124-125; Crabb, 1975=전요섭 역, 1995: 69-72; 갈 5:16-24, 엡 2:3, 4:22, 벧전 2:11, 요일 2:16, 약 1: 14-15). 이처럼 성경의 빛 가운데 분별하여 드러낸 동기를 창조 질서에 부합하게 사용할 때 동기이론의 올바른 성경적 적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경교수에서의 동기이론은 인간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며(Richards and Bredfeldt 1998= 안영혁·이순옥 역, 2010: 171-172),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학습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골 3:1-2, Walsh and Middleton, 1984=황영철 역, 1987: 110; 김준수, 2010: 118-119).

일반적으로 강화와 보상, 모델링 등은 유아성경교수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동주의 교수학습법에 근거한 동기유발방법이다. 하나님 나라에 동기화된 능동적인 학습자(Carter and Narramore, 1979=전요섭 역, 1997: 85-87, 마 13:31-32, 13:44-46, 25:1-13, 25:14-30)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적용에 있어 성경적 관점이 요구된다. 성경적 원리와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칫 유아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개별성과 흥미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Gangel, Hendricks, etc. 1990=유명복·홍미경 역, 2005: 95-96; 김선요, 2004: 126; 김만형, 2014: 331). 행동주의가 변화의 기준으로 삼는 ‘인간 행동의 변화’는 성경에서도 강조된다. 성경은 행함으로서의 증명되는 믿음과 삶 속에서의 변화(약2:17-22, 딤후 1:5-9, 마7:15-21, 잠22:24-25),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성육신적 사역에 모델링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도들의 이야기(행2:14-5:42, 6:1-12:25, 13:1-14:28, 15:36-18:22, 18:23-21:16, 21:17-23:35, 24:1-26:32, 27:1-28:31), 종말론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보상(마 6:33, 마 13:33, 눅 6:35, 고전 10:33, 갈 2:20, 갈 6:9, 빌 3:12 요일 2:15-17)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성경의 본문들이 공통적으로 함의하는 바는 진정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며, 내적인 변화는 개인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영과 육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경적 ‘삶’에 의하면 행동주의와 같이 행동 이면의 요소를 배제한 채, 단서를 보이는 몇 개의 행동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통합한 동기유발의 목적은 첫째, 근본적으로 행동주의가 간과하는 인간 내면

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에 있다. 동기유발의 목적을 단지 행동 변화 자체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 가진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동기유발은 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를 격려하는 동인에서 출발해야 하며(양명희, 2012: 40), 성경의 의미와 깊이 있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유아의 현재 경험이나 필요와 성경의 세계를 연결시키고, 성경적 의미를 담은 강화와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는 성경교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이 과정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아의 내면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 삶을 바꾸어가는 깊고도 섬세한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살아있는 교육과정으로서 교사가 말씀대로 사는 본보기나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따른 가장 강력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Gangel, Hendricks etc., 1990=유명복·홍미경, 2005: 365, Richards and Bredfeldt 1998=안영혁·이순옥 역, 2010: 350-352), 나아가 이 과정이 교사 혼자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가족과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질 때, 유아의 변화는 지속가능할 수 있다(Hemmeter, Ostrosky, and Fox 2006: 583-597; Horn and Jones, 2006=김진희, 백유순 역, 2013; 25-35; Hemmeter, 2007; 12-16).

성경적 적용을 위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소위 ‘모범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동기부여의 보상체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차별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사의 의도와 동떨어져 자칫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범어린이’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선물에 더 집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Scottie May, et al., 2005=강란혜 외 역, 2010: 29). 둘째, 외적인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Erickson, 1983=현재규 역, 2000: 32-33) 동기유발에 있어서도 유아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을 결합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를 존귀히 여기시고 자유롭게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신 예수님의 어린이 존중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마18:2-6, 막10:14-16). 셋째, 그룹 안에 경쟁심이나 우월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교사는 관대함, 친절함, 그리고 이타심 등의 가치 또한 소중하다는 모델링을 보여 주어야 한다(Scottie May, 2005=강란혜 외 역, 2009: 29). 이러한 모델링을 통해 유아는 성경말씀을 내면화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빌2:3-4, 마20:26-28).

유의점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할 수 있다. 첫째, 동기유발을 위해 강화와 보상을 제공할 때는 행동의 의미와 연계될 수 있어야 하며, 물질적인 것을 넘어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강화해 줄 수 있어야 한다(Joseph, Gail, Strain and Phillip, 2004: 21-28; Scheuermann, 2008=김진호 외 역, 2009: 양명희, 2012: 42). 성경적으로는 유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어떤 행위나 조건 없이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유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포용하는 것이다(엡2:8, 고후9:8). 가령, 술래로 남은 아이에게 벌칙을 주기 보다는 자기 팀의 일원으로 수용해준 친구들에게 예고하지 않은 선물을 주거나, 성경 게임 시간에 지고 있는 팀에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강화제로 주는 방식에는 이미 무조건적인 사랑과 복음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복음의 생명력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체적으로 확산되어 가기 위해서는(김기숙, 2003: 373-374, 눅4:18, 롬1:16, 엡3:6, 엡3:16-19, 4:15-16) 사회적 관계 안에서 보상과 강화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성경교수 안에서 동기유발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10:27)는 공동체적인 비전을 그리며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성경말씀을 반 전체의 아이들이 한 명의

유아에게 축복의 언어로 마음껏 들려주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 축복하는 유아 축복 받는 유아 모두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하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이다.

IV. 유아성경교수에서의 동기이론의 성경적 적용

지금까지 동기이론의 성경적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종합하여, 유아에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을 전하고 유아가 이를 내면화하는 것을 돕는 수단으로서 동기이론을 성경적으로 적용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유아의 생활 현장에 내포된 성경교수

성경교수현장은 유아의 생활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유아의 일상생활 경험을 통해 성경교수가 일어날 때, 유아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내면화할 수 있다. 학년 초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교수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유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을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주요상황으로 도입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접근하며 유아가 단계적으로 접근해오게 하는 강화제를 쓰기도 한다. 대개는 일정간격으로 달란트 표식을 붙여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성경교수현장을 향해 올수록 순차적으로 달란트 표식과 함께 성경 메시지를 붙여보는 방법을 제안한다. 성경말씀은 명확한 신학적 개념과 기준을 따르되 유아 수준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리차즈(Richards)와 브렛펠트(Bredfeldt)는 유아기에 배워야 할 기초적인 신학적 개념으로 하나님, 예수님, 세계, 창조, 죄에 대한 정의와 기본개념들을 소개하고 있다(Richards and Bredfeldt 1998=안영혁·이순옥 역, 2010: 396-397). 또한 제시방법에 대해서 하버마스(Habermas)와 이슬러(Issler)는 어린이에게는 단순 주입식 공부를 피하고 어려운 성경의 단어를 쉽게 풀어서 가르치도록 하였다(Habermas and Issler, 1992=김성웅 역, 1997: 424). 다음은 이러한 지침들에 따라 성경 메시지를 정선하여 유아의 상황과 이해수준에 맞게 순차적으로 재구성한 예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아버지란다(창1:27) · 나는 너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시편139:1). · 목자가 양떼를 안전하게 보호하듯이, 나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해 왔단다(시편23:1-2). ·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란다(요한일서 4:16). ·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난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단다(고린도후서 1:3-4). · 그리고 내 아들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어(요한복음3:16). · 예수님은 내가 오는 것을 기뻐한단다(마가복음10:14). · 너를 꼭 안고 축복해주길 기다리고 계신단다(마가복음 10:16)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야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아버지란다 (창세기장 27절)</p>  </div> <p style="text-align: right;">※ 그림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공과 『생명의 빛』 유치부, 교역자 및 지도자용</p>
---	---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 놓인 유아를 성경교수와 통합하여 단계적으로 적응시켜나간 예이다. 유아는 성경교수현장에 도착하여 날마다 성경메시지를 하나씩 경험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성경교수현장과 친숙해진다. 교사는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단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유아가 점차 다음 단계 말씀에 흥미를 갖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한다. 구체적으로 날마다 각 단계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야기로 들려줌으로서 유아가 내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유아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엡 4:11-13).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유아를 기다리며 유아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성령님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요 16:13, 롬 8:24-26).

제시한 성경 메시지로 유아를 동기유발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책임자”이자 “은혜로운 조력자”로서 교사의 긴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김선요, 2004: 132). 성경교사는 유아가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존재적인 관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를 이끌어주어야 한다. 유아를 성장시키는 말씀을 매개로 하여 안전하면서도 도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Habermas and Issler, 1992=김성웅 역, 1997: 396-398). 이를 위하여, 사전에 그날의 성경메시지에 대해 충분히 묵상하고 연구하여 본문의 의도가 유아지도상황에서 분명히 살아날 수 있도록 교수방법을 연구해야한다. 이에 대해 헤이스테드(Haystead)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초점 맞추기, 직접적인 경험 제공하기, 학습기회 마련하기,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대화하기, 활동에 연관된 질문하기, 질문에 답하기와 같은 방법적 절차를 제시하였다(Haystead, 1989: 16-17). 교사는 각 단계의 성경 메시지의 특징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선정하여 날마다 한 구절씩 경험해보게 하면서 유아를 성경교수현장으로 이끌 수 있다. 이 방법은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의 환경적 정서적 상황을 고려한 개별화된 성경교수이다. 유아 개인 성격이나 정서에 따라 신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성경말씀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2. 직접적인 성경교수

다음은, 직접적인 성경교수 방식인 성경이야기의 도입부를 역할극으로 재구성한 예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1:133)²⁾. 동기유발이 어떻게 성경교수와 긴밀한 연관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①	사자 왕, 도와주세요! (열왕기상 18장 20절-40절)		
②	 중심말씀 	열왕기상 18장 24절 (쉬운성경) 당신들 바알의 예언자들이여,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 하겠소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하나님이시오/“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③	 활동유형 	 대상연령 만4세	 집단구성 소집단 역할극
④	 주 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공과(2011). 생명의 빛; 유치부 2과정 교역자 및 지도자용 1·2학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33. 엘리야와 바알선지자들의 대결을 다룬 ‘10과 응답하시는 진짜 하나님(열왕기상 18:20-40)’ 도입부를 참고하였다. 사자 왕과 생쥐와의 줄다리기를 역할극으로 재구성하였다. 유아의 경험의 세계와 성경의 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해 감각적 동기유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입부로 제한함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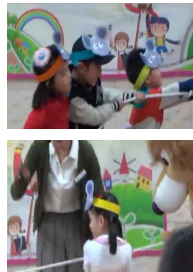
| 목 표 | 하나님은 능력 많은 분임을 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알고 자신감을 갖는다.

| 주요내용 |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엘리야와 능력의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생쥐 친구들 3:1의 줄다리기는 게임이 안 되지만 사자 왕을 부르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⑤ **| 활동자료 |** 생쥐 머리띠, 줄다리기용 밧줄, 전신사자탈(혹은 사자가면과 갈색외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PPT 화면,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사자왕의 행진', 카세트

⑥ **| 도입부 |** (PPT를 사용하며) 숲 속 나라에는 어느새 봄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집 안에만 꼭꼭 숨어 있던 생쥐 친구들이 오늘은 봄 동산으로 나와서 줄다리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꽃샘추위 때문에 같은 편을 하기로 한 다른 두 마리 생쥐가 감기에 걸려 못나왔어요. 왼쪽 편과 오른쪽 편 중 어느 편이 이겼을까요? 우리가 직접 해볼까요?(3:1로 유아들이 직접 나와서 생쥐모자를 쓰고 해본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자 왕이 오른쪽 생쥐를 도와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사자 왕을 불러볼까요? “사자 왕 도와주세요!” (음악에 맞추어 사자탈을 쓴 교사 등장, PPT그림대로 직접 해본다) 우리의 사자 왕과 함께 하니깐 어떤가요? 이렇게 사자 왕이 한 팀이 되어주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 있어요.

<PPT그림자료>



⑦ **| 기 타 |** 활동유의점, 가정연계활동, 활동평가

① 제목은 성경이야기의 출발점으로서 성경의 전체 주제를 집약하면서도 유아의 관심을 한 번에 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함영주, 2012; 98-99). 사자는 유아가 친근감을 느끼는 동물로서 본 이야기를 알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해줌으로써 성경이야기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소개한다. ② 이해하기 쉽게 기술됨으로서 유아가 성경의 세계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쉬운성경' 버전으로 소개한다(Habermas and Issler, 1992=김성웅 역, 1997: 424). ③ 소집단 역할극은 유아가 이야기 속 내용과 인물에 감정이입함으로써 온 몸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유아기에는 단순히 앉아서 성경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유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유아의 참여를 유도하는 감각적인 동기유발을 통해, 유아가 성경의 세계로 몰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Richards and Bredfeldt 1998=안영혁·이순옥 역, 2010:383-384). ④ 주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이며 여기서 배울 것을 목표로 정리하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주요내용은

단순한 한 가지 기초 개념으로 구성하여(Gangel, Hendricks etc., 1990=유명복·홍미경, 2005:168-169) 동기유발의 효과가 분산되지 않고 주요 개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⑤ 유아는 감각자료나 실물자료에 의해 동기유발이 쉽게 일어나며 이는 이어지는 성경이야기의 몰입도 까지 영향을 미친다. ⑥ 줄다리기하는 친근한 소재를 이야기방식으로 들려줌으로서 유아의 동기를 유발하고 나아가 유아의 경험을 성경의 세계로 연결시켜줄 수 있다. 또한, 사자 왕이라는 상징으로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동기부여의 상징과 은유가 성경본문의 맥락이나 중심 주제를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May et al., 2005: 3-10, 강란혜 외 역, 2010: 17-25). ⑦ 활동유의점에서 먼저, PPT 그림화면은 성경이야기 내용에 맞춰 등장인물을 순차적 제시하고 사자 왕이 등장할 때는 『동물의 사육제』 중 ‘사자왕의 행진’을 틀어준다. 이러한 감각적 자료들은 사자왕에 대한 유아의 흥미를 지속시킴으로서 유아를 계속해서 동기화시켜준다. 생쥐 역할을 선정할 때는 소외된 유아나 장애유아가 있을 경우, 참여를 격려함으로써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강화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정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성경이야기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본문 내용과 연계된 가정활동 안내지를 보내고 활동한 내용은 다음 주 유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긍정적인 강화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도입과 도입 후 성경교수를 통해 유아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경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교사는 도입부를 포함하여 성경교수의 전 과정에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Gangel, Hendricks etc., 1990=유명복·홍미경, 2005:168). 동기는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유아성경교수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이로 인하여 성경교수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도입 활동 후에는 바로 성경본문으로 들어가 동기부여의 효과가 성경의 중심주제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갖게 하고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내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기를 유발시킬 때 올바른 성경적 적용이 될 수 있다.

3. 유아교육과정과 통합한 성경교수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성경교수는 기존의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³⁾ 다음 성경적 통합 활동을 통해 동기이론이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식물을 들보게 하셨습니다			
①	관련성경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창세기 1장 27절~31절)	
	이야기		
	활동유형	이야기나누기	연령 만 5 세
			집단구성 대집단 활동

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유아교육기관은 국가수준 교육과정(현, 누리과정)을 운영한다. 기독교 교육철학을 추구하는 유아교육기관과 같은 경우 성경교수는 유아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Knight(1981; 201)가 제시한 교육과정 통합원리에 따르면, 기존의 교육과정에 성경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성경이 기초가 되고 해석의 근거가 되는 성경적 통합 유형을 제시하였다. 본 활동은 이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성경적 통합의 원리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 ② | **통합목표** | • 동·식물 기르기를 통하여 자연을 돌보는 기쁨을 경험한다.
•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가꾸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다.
- | **누리과정** | • 의사소통 :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 | **관련요소** | • 자연탐구 :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 사회관계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알고 조절하기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③ | **인성요소** | 책임: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에 대한 책임

④ | **활동자료** | 지난 주에 심은 모종 화분, 유아들이 모종을 심는 사진, 관련 성경이야기 장면

⑤ | **활동방법** |

- **도입**
 1. 사진활동: 지난 주에 심은 모종 관찰하기
 2. 지난주에 모종을 심은 경험을 돌아본다.
- 모종을 심어보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 **전개**
 3. 유아들이 모종을 심는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 내가 심은 모종이 어떻게 되었나요?
 4. 심은 모종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해 본다.
- 모종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 모종이 자라도록 무엇을 해 주었나요?
- 내가 심은 화분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어땠나요?
- 화분을 친구에게 맡긴다면 어떤 부탁을 할까요?
 5. (성경이야기 해당 부분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을 회상한다.
-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나요?
- 자연을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특별히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구나!”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였어요.

- **마무리** 6.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 하나님께서 ‘00야 잘 돌봐주렴!’하고 세상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 ⑥ | **활동 | 유의점** | • 유아들이 심은 모종이 잘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행해본다. 식물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므로 식물이 자라는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도록 한다.
• 다스리고 정복하라(창 1:26-28; 2:15)의 의미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좋은 모습대로 가꾸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준다.
• 동·식물이 잘 자랄 때의 기쁜 마음이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을 생각해 보도록 지원한다.
- ⑦ | **확장활동** | • 언어영역: 동물을 돌보는 법과 동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 실외활동: 봄 동산을 산책하면서 하나님께서 식물에게 필요한 햇빛과 공기, 비를 주셨음을 이야기 나눈다.
• 과학영역: 동·식물을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관찰일지를 쓴다.
- ⑧ | **활동평가** | • 동·식물을 기르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평가한다.
• 소중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돌보는지 평가한다.
•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지 평가한다.

| 활동사진 |



[텃밭 가꾸기] 식물 기르기를 통하여 식물이 자라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난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이해 할 수 있다.



[모종 키우기] 자신이 직접 심은 모종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돌보게 된다. 세상을 직접 만드시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기를 수 있다.

본 활동은 유아가 일상생활 경험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내면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봄의 식물 기르기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봄철 생활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다. 통합목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상적인 동식물 기르기 활동 속에는 자연을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있다. 이를 성경이야기로만 전할 때, 유아의 삶과는 분리된 단순 사실에 그치게 된다. 한 주간 성경이야기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할 때, 성경이야기는 유아의 삶 속에서 체현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Richards and Bredfeldt 1998=안영혁·이순옥 역, 2010:386; Gangel, Hendricks etc., 1990=유명복·홍미경, 2005:168-169).

① 성경이야기와 활동을 연관시키는 것은 성경의 세계로 발돋움 하는 동기유발이 된다. 성경이야기가 교실의 모든 활동이 수행되는 조건이자 전제가 될 때, 성경적으로 재해석되고, 실생활에서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다. ② 통합목표는 유아교육과정의 활동과 유아교육과정(누리과정) 관련요소를 통해 성경의 주요 개념을 현재의 생활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켜 준다. ③ 유아는 식물을 가꾸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인성요소를 내면화하게 된다. ④ 유아가 직접 가꾼 화분과 자신의 모습이 나온 사진, 그리고 이미 들어본 성경이야기들은 활동에 대한 친숙함과 흥미를 갖게 해주어 통합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정옥분, 2004: 84). ⑤ 활동방법의 도입, 전개, 마무리의 순서를 따라가며 유아는 하나님의 창조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기유발이 된다. 모종심기를 한 경험과 모종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이를 성경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연관지어보도록 한다. 이러한 공감의 과정을 통해 유아는 자발적으로 자연을 아끼고 돌보는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게 된다. ⑥ 식물을 가꾸며 생기는 궁금한 점, 느끼거나 새롭게 깨달은 점 등을 성경적 기초 위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 ⑦ 흥미영역 활동을 통해 동식물 기르기를 다양하게 경험해봄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책임감 있게 자연을 돌보는 태도에 지속적으로 동기화되도록 안내한다. ⑧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처음에 설정한 통합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사용한 성경적 동기부여 방법이 적절하게 기능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성경교사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지만,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갖는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유한하고 제한된 인지구조로 심원한 하나님의 세계인 성경의 진리를 다 담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찬양하는 것 자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Grudem, 1994=

노진준 역(하), 2009: 203-204). 그러므로 성경교사는 실제 성경교수현장에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사랑을 가지고 겸손히 진리 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신앙과 학문도 성령님의 통치 아래 굴복해야 한다(Gangel, Hendricks etc., 1990=유명복·홍미경, 2005: 120).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억하며(요일 4:9).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전인격적이고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이 가르침에 모든 동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개혁주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경교수와 심리학의 통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성경적 적용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이를 위해 동기유발 같은 심리적 기제에 민감한 유아 대상의 성경교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기이론을 성경적으로 통합해 봄으로서, 그 구체적인 적용실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지금까지 기독교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독교 교육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에서의 심리학 통합에 대한 대표적인 통합모형을 신학과 심리학의 대립모델, 신학이 심리학에 편입되는 종속 모델, 성경과 심리학의 통합 모델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통합모델에 대해 성경적 통합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개혁주의 세계관에 근거한 통합원리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성경교수 현장에서의 심리학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위해, 유아성경교수에서의 심리학 통합을 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적용해보았다. 세부적으로, 성경의 중심 주제를 유아의 이해 수준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의 동기이론을 성경 교수 상황에서 균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 안목이 요구된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통합적 적용을 위해 동기이론을 성경적으로 조명한 결과, 자아를 향하는 인간 동기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성경적으로 통합된 동기유발의 적용방법과 현장에서의 적용실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생활 현장에 내포된 성경교수 방법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직접적인 성경교수 방식인 성경이야기의 도입부를 통해 동기유발이 어떻게 성경적 가르침을 전하는데 긴밀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성경적으로 통합한 활동을 통해 유아의 일상생활을 성경의 세계로 연계하는 동기화를 적용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성경교사는 동기이론을 활용하는 것에 치우쳐 자칫 성경이 전하는 핵심개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경교수의 전 과정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적 교수학습역량을 갖춘 성경교사에 의해 심리학의 이론은 유아성경교수현장에서 성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에서 심리학의 통합 원리 및 방법이 성경교수현장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대상과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심리학의 주요 연구 분야인 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성경교수에서의 심리학 통합을 논하였으나, 이는 심리학을 설명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리학의 또 다른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성경적 조명이 요구된다. 둘째, 성경적 통합의 적용사례는 동기이론이 어떻게 성경적 원리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 준거활동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은 통제하였음을 밝혀둔다. 셋째, 본 연구의 적용방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동기유발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기유발의 기반이 되는 행동주의와 인지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성경적 조명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대상, 다양한 방법의 성경적 적용 사례가 연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미라(2011). 우리나라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교육전도사의 인식과 요구도 조사.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 강진구 (2014). “긍정심리에 관한 기독교 세계관적 이해.” 『기독교학문학회』 . 31. 1-16.
- 교육과학기술부 (201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 권택조 (2005). 『기독교교육심리학』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기숙 (2003).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공동체교육의 의미. 인문논총,11, 373-390
- 김만형 (2014). 행동주의 학습이론과 기독교 교육. 신학정론, 21(1), 304-338.
- 김미숙 (2007). 기독교상담에 나타난 통합운동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삼복(2009), “통합적 기독교교육에서 심리통계 연구조사가 갖는 의미”, 『기독교교육논총』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1), 85-108
- 김선요 (2004). “현대 교육의 교수-학습 원리에 대한 성경적 비판과 해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 11. 121-139.
- 김성수 (2013).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의 원리와 과제. 『2013년 가을 개혁신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문』 . 개혁신학회. 9-42
- 김수연 (2003),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막힌 담, 그 가운데로 열린 새롭고 산 길, 복음과 상담, 1, 143-168.
- 김준수 (2003).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복음과 상담』 , 1, 8-29.
- _____ (2010). “인간동기의 심리학적 이론과 성경적 이해.” 『복음과 상담』 . 18. 106-130.
- 김용민 (2012).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Mullins의 성육신론과 Corey의 상담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2), 57-86.
- 김용욱 (2011). “성육신 원리에 근거한 성경과 심리학의 대화.” 『충신대학교박사학위논문』 .
- 김희자 (2003). 『정보화 시대의 기독교 어린이 교육』 .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2014). 생명의 빛 유치부 합동공과 2과정 1·2학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박기영(2007). 기독교상담학의 성향 분류에 따른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모델 : 성경관, 인간이해, 심리학 개방성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도선 (2005). “듀이의 아동 중심 교육의 진의”. 『교육사상연구』 . 16. 147-167.
- 신국원 (2002). “다윈주의 내의 기독교 학문의 정체성.” 『21세기와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대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논문집』 .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 _____ (2005). 『니고데모의 안경』 . 서울: IVP.

- 심수명 (2006).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 개념 및 그 적용 방안 연구. *복음과 상담*, 16, 200-234.
- 안경승 (2003). 구약의 지혜자를 통해서 본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복음과 상담*, 1, 30-50.
- 안영진 (2009). 『교육심리학』. 서울: 정민사.
- 안석모 외 (2009). 『목회상담 이론 입문』. 서울: 학지사.
- 오윤선 (2008). 청소년 발달특성 문제에 관한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의 통합적 접근. *복음과 상담*, 11, 209-226
- _____ (2009).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예영.
- 우연경 (2012). “흥미 연구의 현재와 향후 연구.” 『교육심리연구』. 26(4). 1179-1199.
- 유혜령·강은희·박지영 (2003). 『유아 교수공학과 교수·학습 방법』. 서울: 창지사.
- 이관직 (2003).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기독교 심리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이돈하 (2012). “Critical Contextualization of John Dewey’s Educational Philosophy.” 『개혁논총』. 23. 163-209.
- 이봉남 (2015). 기독교상담 통합방법으로서의 복음적 차용통합론.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욱 (2009). 『21세기 기독교전인유아교육』. 과주: 교문사.
- 이성진 외 (2009). 『교육심리학서설』. 서울: 교육과학사.
- 전형준 (2014). 기독교상담의 통합 모델에 관한 성경적 상담학적 조명. *복음과 상담*, 22(1), 256-289.
- 정옥분 (2004). 『영유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일웅 (2011). 『교회교육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주성준 (2000).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한 이해: 누가복음 4:1-13을 중심으로”. 『총신대 논총』. 19. 352-386.
- 최광현 (2003).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성 통합. *복음과 상담*, 1, 190-206.
- 함영주 (2011). “기독교교육학에 있어서 신학과 사회과학의 통합문제: 개혁주의 신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음과 교육』. 9. 71-96.
- _____ (2012a). 학습자 중심의 교육원리에 대한 기독교교육학적 통합과 비평, *기독교교육정보*, 33, 61-85.
- _____ (2012b). 『심장을 뛰게 하는 가르침의 기술』. 소망플러스.
- _____·신승범·이현철·전병철·조철현 (2015). “2015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연구보고서: 한국교회교육의 현실분석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통합연구.” 『한국복음주의신학회·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 황지연 (2014). 심리학과 영성의 통합을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2), 189-229.
- Ackerman, P. D. (1997). The integrate model for relating psychology and Christianity. *CreationSocialScience and HumanitiesSociety*, 10(4), 7-13.
- Adams, Jay. E. (1970).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Zondervan. 정정숙 역 (1985). 『목회 상담학』. 서울: 세종문화사.
- Carter, John D. and Narramore, Bruce. (1979). *The Inter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Corporation. 전요섭 역 (1997).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과 갈등』 (1997). 서울: 하늘사다리.
- Collins, Gary R. (1981). *Pyschology &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 Nashville: Abindon. 이종일 역 (1992).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전망』. 서울: 솔로몬.
- Crabb, Jr., Lawrence J. (1975) *Basic P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 Zondervan Pub. House. 전요섭 역 (1995). 『성경적 상담학 개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 _____ (1977).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 Eggen, Paul and Kauchak, Don (2004). *Educational Psychology: Windows on Classrooms*. NJ: Prentice Hall. 신중호 외 역(2006). 『교육심리학: 교육 실재를 보는 창』. 서울: 학지사.
- Erickson, Millard J. (1983).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s. 현재규 역 (2000). 『복음주의 조직신학(중): 인간론·기독교론』. 광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Gangel, Kenneth O., Hendricks Howard G. etc. (1990). *The Christian Educator's Handbook on Teaching*. Timothy Publishing House. 유명복·홍미경 역 (2005). 『교수법 베이직』. 서울: 디모데.
- Gerd Theissen (2003). *Zur Bibel motivieren*. Gütersloher Verlagshaus. 고원석·손성현 역 (2010). 『성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열린 성서 학습의 길』. 서울: 동연.
- Grudem, Wayne A. (1994).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the Biblical Doctrine*. England: Inter Varsity Press. 노진준 역 (2009). 『조직신학-상·하』. 서울: 은성.
- Habermas, Ronald and Issler, Klaus (1992). *Teaching for Reconciliation: Foundations and practice of Christian Educational Ministry*.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김성웅 역 (1997). 『화목을 위한 가르침』. 서울: 디모데.
- Haystead, Wes. (1989).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teaching young children: Birth-6 years*. Ventura: Calif: Gospel Light.
- Hemmeter (2007). We are all in this together: Supporting children'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and addressing challenging behavior. *Echange*, 12-16.
- _____, Fox, Jack & Broyles (2007). A Program-wide model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early childhood setting.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9(4), 337-355.
- _____, Ostrosky, Fox (2006). Social and Emotional Foundations for Early Learning: A Conceptual Model for Intervention. *School Psychology Review*, 3(4), 583-601.
- Hoekema, Anthony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Eerdmans Publishing Company. 류호준 역 (1990).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Holmes, Arthur F. (1983). *Contours of a world view*.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이승구 역 (1985). 『기독교세계관』. 서울: 엠마오.
- Horn & Jones 편저(2006)=김진희, 백유순 공역(2013). *사회·정서발달지원*. 학지사.
- Johnson, Eric L (2007). *Foundation for Soul Care*. England: Inter Varsity Press. 전요섭 외 역. (2012). 『기독교 심리학』. 서울: CLC.
- _____, et al.(2010).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2nd ed.). England: Inter Varsity Press. 김찬영 역 (2012).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 서울: 부흥과개혁사.
- Jones, Stanton L. and Butman, Richard E. (1991).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IVP Academic. (2nd ed.). 이관직 역 (2009). 『현대 심리치료와 기독교적 평가』. 서울: 대서.
- Joseph, Gail, Strain and Phillip (2004). *Building Positive Relationships with Young Children*. *Young Exceptional Children*, 7(4), 21-28.
- Knight, H. R. (1981). *Philosophy and Education*, Berrien springs. MI: university press.
- May, Scottie. Posterski, Beth. Stonehouse, Catherine and Cannell, Linda (2005). *Children Matter: Celebrating Their Place in the Church, Family, and Communit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강란혜 외 역 (2010).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린이로!』. 서울: 창지사.
- Powlison, David (1995). Idols of Heart and "Vanity Fair."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3(2). 35-50.
- Richards, Lawrence O. and Bredfeldt, Gary J. (1998). *Creative Bible Teaching*. Chicago:

- Moody Publishers. 안영혁·이순옥 역 (2010). 『창조적 성경교수법』. 서울: 그리심.
- NAEYC (199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revised edition.”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9-15.
- NAEYC & NAECS/SDE (1990). “Guidelines for appropriate curriculum content and assessment in programs serving children age 3 through 8.”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21.
- Scheuermann, B. K. & Hall, J. A. (2008). *Positive Behavioral Supports for the Classroom* (1st). Pearson Education, Inc. 김진호, 김미선, 김은경, 박지연 역 (2009). 긍정적 행동지원. 서울: 시그마프레스.
- Swindoll, Charles R. (2008). *Jesus: The Greatest Life of All*.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윤종석 역. (2009). 『예수, 가장 위대한 생애』. 서울: 디모테.
- Walsh, Brian and Middleton, J. Richard (1984). *The Transforming vision :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IntersityPress. 황영철 역 (1987).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IVP.
- Wolters, Albert M. (1985). *Creation Regained : Bibil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ldview*.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양성만 역 (1992). 『창조·타락·구속』. 서울: IVP.